

지역 소식통

완주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3대 교체

완주군이 봉동 산업단지내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4개소 중 노후된 3개소를 이달 내 교체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상 측정 센서, 악취 감도 센서가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악취 피해 취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봉동 산업단지내 4개소, 소양 둔사 밀집 지역 1개소 등 모두 11개소에 고정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주거 밀집지역 2개소·악취배출업소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측정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악취 발생 시 기준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교체해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오류를 최소화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주민 불편제도 개선 혁신과제 공모 선정

완주군이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4월 한 달간 완주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목잡는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총 1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5개의 우수과제(최우수1, 우수1, 장려3)를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 교육아동복지과 보육지원팀에서 건의한 '학교 내 병설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사각지대 해소'가 선정됐다.

우수 제안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건의한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제안이 꼽혔다.

완주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제 경영체·농지원부 경작사항 일치 여부 확인...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돌파구' 기대

김제시는 농식품부와 전국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정보는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과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자료관리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김제시는 실제 경영체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2021년말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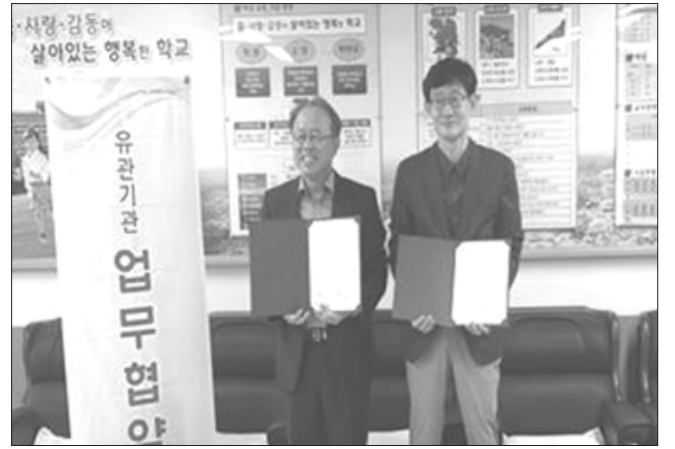
농지원부의 정비는 토지대장, 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DB와 비교분석,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정비,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대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발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에 포함한다.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

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여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상세한 조사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월~11월)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김제시의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한 농지원부의 현황화는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에서는 '온(溫)마을학교'와 관련해 김제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

“학생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김제보건소-김제초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위한 협약 체결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에서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특화프로그램인 '온(溫)마을학교'와 관련해 김제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

조기중재 및 정신건강 특화프로그램 '온(溫)마을학교'는 따스하고 온전한 마음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문제 진단 및 심리정서 상담지원, 정신건강 문제유형별 집단 프로그램, 전교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등으로 통합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에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정신안정을 지원하여 자아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은 "지역 내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임산부 배려문화 만들기' 앞장

직장 임신 여성에 표지판 부착
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10일 양성평등문화 및 여성친화도시 확산의 일환으로 직장내 임신여성들에게 표지판을 부착하여 임신부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알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분청 및 읍면동 임신 중인 김제시청 직원들을 시작으로 향후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청취·보완하여, 2021년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 보건소에서는관내 임신한 여성들에게 임신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있으며 출산교실 운영, 출산용품 및 장려금 지원, 예방접종실시, 의료비지원 불

편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김제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과 함께 가정, 사회, 직장에서 임신부 배려문화가 조성돼야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이울러 초저출산 시대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여성의 복지에

김제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억 4000만원 부과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20년 1월 3월 연납분 27억8,000만원을 제외한 제1기분 자동차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2편 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080-540-3377)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 조회 및 가상계좌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06:00 ~ 23:30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부과 예정인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선납분(7월~12월)에 대하여 10% 할인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여름 감자 수확

김제시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준선)는 올해 특색사업 중 감자 재배사업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해 10월에 여름 감자를 수확했다.

지난 3월에 감자를 재배하여 마을 경로당, 소외계층 등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중 한 의원이 농지를 무상 임대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정성껏 감자를 심었다.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

고추장 담그기를 추진했 일상생활에 필요한 고추장 나눔사업으로 25개 경로당 및 소외계층 135여 세대에게 기부했다.

안준선(주민자치위원장)은 "힘든 일임에도 자기 일처럼 감자 밭 관리에 힘써준 자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관내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에게 반찬거리를 제공하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뜨거운 햇볕과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자 수확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고 격려했고, "생활 속 거기 두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자"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